



## 국내·외 축산소식



### 서원유통-부경양돈농협 업무제휴

부산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 유통업체인 (주)서원유통과 부경양돈농협이 유통매장 인수와 축산물 공급 등 업무제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맞선다.

서원유통과 부경양돈농협은 23일 오전 부산롯데호텔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부경양돈농협의 하나로마트를 서원유통의 탐마트에서 인수, 운영하고 부경농협에서 생산하는 브랜드 돼지고기 포크벨리를 탐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제휴는 생산과 유통부문에서 강점을 지닌 업체간 협약으로 부경양돈농협은 생산과 사육, 가공시스템을 특화한 포크벨리를 부산과 경남지역 41개 탐마트 매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서원유통은 관리가 우수한 농장에서 생산돼 균일한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경양돈농협의 하나로마트 4곳도 인수,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원유통 관계자는 “지역 유통업체와 생산업체가 서로 특화된 부문에서 협력함으로써 자본과 규모를 앞세

운 대형할인점 공세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터키, 이란 등 5개국 AI 발생 은폐 비난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4명이 사망하는 등 AI 퇴치에 초비상이 걸린 터키 정부는 20일 시리아와 이란 등 주변 5개국들이 AI 발생 사실을 감추고 있어 AI 확산 저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흐디 에케르 농업장관은 이날 국내 81개주 지사들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우리와 이웃하면서 폐쇄된 체제를 갖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 AI 감염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이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에케르 장관은 국가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각자 접경 주에서는 AI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키는 가장 타격이 심한 동부 지방이 이란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으며, AI 감염이 확인된 남동부 지방은 시리아와 맞닿아 있다.

또한 불가리아, 그리스, 이라크 등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터키내 AI 감염 상황과 미국의 지원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부지역을 둘러봤다.

조사단은 주말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시찰한 뒤 내주에 터키에 들러 조사 결과 등을 터키 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한 외교관이 말했다.

터키에서는 지난 1일 이후 동부지역에서만 10대 4명이 AI에 감염돼 숨졌다. 지난 2003년 이후 약 80명이 숨진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첫 AI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20일에는 이란과의 접경 마을로 4명이 숨졌던 곳에서 또 다시 5세에서 15세의 5명이 AI바이러스(H5N1)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터키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특히 어린이들에게 잘 감염되는 것은 일부 농촌에서 닭을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고 10대 소녀들이 가사를 돕기위해 직접 가금류를 살해하고 요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집마당에 닭을 키우고 있는 것도 AI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어 터키 정부에서는 가금류와 접촉의 위험성을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보건부의 고위 관계자는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가금류의 수가 약 1천만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결정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은 이들 가금류를 살 처분하고 이같은 방식의 사육을 금지시키는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양카라 AFP=연합뉴스)



## 축산물 가격차이 3배 넘어

지역의 백화점, 할인점이 판매하는 돼지고기·동태·고등어 등 축·수산물의 가격이 유통업체별로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유통업체들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등급 판정 확인서를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대전지역 백화점 3곳과 할인점 14곳을 대상으로 축산·수산·건어물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업체별로 가격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쇠고기 1+ 등급 양지(100g)는 월마트가 4452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홈플러스 동대전점이 799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4900원, 세이백화점은 7000원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1마리의 가격은 같은 브랜드이지만 갤러리아 타임월드점이 롯데백화점보다 180원이나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25cm) 1마리는 안영동 농협유통센터가 1만원으로 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부세조기 중국산의 경우 유성 가르푸가 35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백조기 국내산은 롯데마트가 7000원으로 가장 고가였으며 동방마트의 경우 조기의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제조사만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어(25cm) 1마리 국내산은 농협유통센터가 2000원으로 할인점 가운데 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가르푸 둔산점, 홈플러스 동대전점, GS마트, 홈플러스 둔산점, 월마트, 대한통운마트, 세이브존마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유통센터의 고등어 가격은 세이브존 마트의 700원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높았다.

까르푸 문화점과 동방마트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급판정확인서를 모두 고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GS마트, 홈플러스 동대전점, 대한통운마트는 일부 돼지고기에 한해 고시를 하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관계자는 “유통업체마다 가격이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고기를 구입할 때는 식육판매업소에 비치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브라질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는 러시아가 2004년보다 132%나 증가한 5억5천530만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이집트가 2억5천270만달러, 네덜란드가 1억9천150만달러, 영국이 1억8천170만달러, 이탈리아가 1억5천27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 [브라질] 지난해 쇠고기 수출 사상 최대

브라질이 지난해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쇠고기 수출협회(Abiec) 조사 결과 지난해 쇠고기 수출량은 2004년보다 18%가 늘어난 239만1천에 달했으며, 수출액은 22% 증가한 31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쇠고기 수출협회 관계자는 “브라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구제역 파문에도 불구하고 세계 쇠고기 수출시장에서 수출량 1위, 수출액 2위 자리를 유지했다”면서 “기축 사육을 위한 위생 시스템을 정비하면 올해도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 전 세계 50여개국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1억5천만달러 정도의 수출액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FTA 협상, 사회양극화 우려

세계최대 농산물 수출강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FTA를 맺어야 하며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 타워)에서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FTA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공청회를 벌여야 한다는 자유무역협정 절차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실시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협상 개시를 본격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도 같은 시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 사실을 의회에 보고한 후 90일 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두는 것을 감안할 때 협상테이블에 양측이 앉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략 석달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에 대해 올바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정부와 농민간 조정의 장이 우선 마

런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농업회생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이 강행될 경우 농업생산감소 및 농가소득 하락이 발생해도·농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게 농민단체의 지적이다.

농민단체는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회양극화 부분인데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확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농민단체는 따라서 “협상진행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보장하는 통상절차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업발전 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없이 FTA를 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수축산신문)



## 日, 美에 쇠고기문제 철저 대책 요구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농림수산상은 22일 도쿄에서 로버트 줄릭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광우병(BSE) 감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부위가 더이상 수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줄릭 부장관과 1시간 정도 면담을 가진 나카가와 농림수산상은 “일본에서 미국쇠고기가 소비되기를 바란다면 미국은 양자간에 합의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줄릭 부장관은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으며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도 문제가 된 쇠고기의 선적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척수 같은 광우병 유발 우려가 높은 부분을 모두 제거한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했으나 지난 20일 수입된 쇠고기에서 척수가 발견됐으며 다시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도쿄 AFP=연합뉴스)



## 불붙은 ‘한국 쇠고기시장 쟁탈전’

- 미국·호주, 시식회 등 주도권 확보나서

미국과 호주가 국내 쇠고기시장에서 소비자 공략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우 소비기반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쇠고기 유통업계에 따르면 2년여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내 수입쇠고기시장을 주도해온 호주 육류업계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일 기세다.

이에 따라 호주축산공사 한국대표부는 이미 전국 70여곳의 이마트와 주요 백화점 및 유통매장에서 호주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시식회를 펼친 데 이어 2월부터는 수입쇠고기 취급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세미나를 계획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호주축산공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호주산 쇠고기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한국시장 공급량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주에 맞서는 미국도 수입중단조치 이전 수준의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한 전체 쇠고기 29만3,606t 가운데 미국산은 68%, 호주산은 21%에 불과했으나 2004년과 2005년엔 호주산 비중이 64%와 71%로 급증했기 때문.

미국육류수출협회 한국사무소의 관계자는 "아직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호주에 빼앗긴 시장을 되찾아 오기 위해 유통업체 홍보활동을 대거 지원하는 등 마케팅 활동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미국이 이처럼 한국시장에서 자국산 쇠고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게 되면 결국 한우 소비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호주와 미국이 시장 확보를 위해 소비자 판매값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외식업계쪽으로도 공급량을 늘릴 것이 분명해 한우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며 "농가는 자조금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 농림부, 美쇠고기 수입 재개 일정 그대로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다시 수입을 중단했지만 오는 3월말 전후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일정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박헌출 축산국장은 22일 "일본은 척추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뼈도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미국내 수출 작업장에서 실수로 등뼈를 함께 포장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나라의 수입 재개 일정을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우리는 합의 내용이 일본과는 다르다"며 "뼈는 수입 허용 대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 산지 소값 내리는데 쇠고기값 왜 오르나

(::선물세트 30 ~ 40% 뛰여 소비자 불만::)오는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산지 한우값이 급락하고 있는 반면 설대목을 겨냥한 쇠고기 선물세트 가격은 지난해보다 30~40%나 올라 소비자들의 불평이 커지고 있다.

20일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지난 16~18일 5개 주요 백화점과 8개 할인점을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가격 변화추이를 조사한 결과 짐용 한우 갈비세트가 백화점에서 1kg에 평균 8만150원으로 작년의 5만5330원보다 44.9% 뛰었고 할인점에서는 6만4700원으로 4만9530원보다 30.6% 상승했다. 이 같은 쇠고기값 급등은 최근 4개월간 산지 소값이 20% 이상 떨어진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경북지역 4개 가축시장의 20일 한우(수소 500kg 기준) 산지 평균가는 356만9000원으로 지난해 10월 456만9000원에 비해 무려 100만원이 떨어졌다. 충북과 전북지역에서도 현재 500kg짜리 수소 한마리 가격이 364만원으로 최고치를 보인 지난해 10월 중순의 455만원에 비해 큰폭으로 떨어졌다.

물가협회는 "산지 소값이 급락했지만 쇠고기값이 오른 것은 중간 유통업체들이 설 특수를 겨냥해 비축해뒀던 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분노에 가까운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축산신문)㉞